

한국문화교류 소식

30호 2018년 12월 15일 발행·발행인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사무실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711호(내수동, 세종로대우빌딩 복합동)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특집 : 현장의 눈 1]

태권도,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을 위한 4자 협약 체결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세계태권도연맹, 아시아발전재단,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와
상호 협력해 사업 펼치기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는 지난 9월 28일(금), 서울 종로구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에서 태권도 및 한국어의 교육 증진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4자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태권도연맹, 재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재아시아발전재단 및 ICKC가 함께한 본 협약에 따라 앞으로 네 단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저개발국에 대한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에 상호 협력하며,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세계 인재 양성과 아시아 각국 등 해외 교육 및 지원 사업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본 협약의 취지 및 요지를 전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세심히 보도한 『재외동포신문』의 기사를 전재(소載)한다. 게재를 허락한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대표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_ ICKC 사무국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는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재)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재)아시아발전재단과 함께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 증진을 위한 4자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네 단체는 협약서에 따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저개발국에 대한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왼쪽부터) 조남철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이사장 겸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허중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부총재가 협약서 서명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본 기사의 모든 사진은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세계 인재 양성과 아시아 각국 등 해외 교육 및 지원 사업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협약서에 서명 중인 각 단체 대표. (왼쪽부터) 조남철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겸 아시아발전재단 상임 이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허중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부총재

이날 협약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하스 라파티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허중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부총재, 조남철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겸 ICKC 이사 등이 참석했다. 조 이사장은 (재)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직도 겸임 중이다.



모두 발언하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모두 발언에서 “태권도와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세계 인재 양성과 세계 평화 증진이라는 뜻 깊은 일에 동참한 각 단체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며 “이번 협약이 세계 각지의 난민, 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태권도 아카데미 개설 등 올림픽 스포츠로서 태권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총재는 “특히 아시아발전재단과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등 협약 단체들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결부된 체계적인 태권도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며 “가능한 서로 자주 모이고 협의해 태권도와 한국어를 통

한 국위 선양에 함께 힘쓰자”고 덧붙였다.



인사말 하는 조남철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겸
아시아발전재단 상임 이사

이에 조남철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장 겸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우리 문화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 자리에 각 단체를 모이게 한 동력”이라며 “태권도와 한국어의 진흥 및 국제 교류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의 활동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이사장은 “지난 2016년 김준일 전 (주)락앤락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만든 아시아발전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 또한 보다 뜻 깊은 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언 중인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사는 인사말에서 “한민족은 6천년의 역사를 살아남은 강한 민족으로, 이제는 세계 각지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베풀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태권도와 한국어 교육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태권도박애재단(THF)을 설립한 세계태권도연맹의 노력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오늘 모인 4개 단체가 세계 각지의 태권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한국문화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 하는 허종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부총재

마지막으로 허 종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부총재는 “각 단체가 여기 모인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뿐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이며 우리가 태권도와 한국어 교육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세계 각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허 부총재는 “각 단체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해 교육 사업을 펼쳐 나간다면 세계 각지에서 고통 받는 약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아울러 그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는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재)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재)아시아발전재단과 함께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 증진을 위한 '4자 교류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른 상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조남철 이사장은 오는 11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2018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연차대회’ 및 ‘GCS 캄보디아국 가본부 결성식’ 행사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태권도와 한국어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소정의 후원금 및 교육자료 지원 등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기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서정필 기자, 2018/10/02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 캄보디아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빠르면 내년 7월 캄보디아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하기로 뜻모아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는 지난 11월 10일(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국제대회 행사에서 행 추운 나론 캄보디아 태권도 협회장 겸 체육청소년교육부 장관에게 '태권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본 발전기금은 ICKC의 기부금과 올해 2018 제주세계평화경기축제 및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초청 자선공연 수익금 등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캄보디아태권도아카데미 운영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와 조남철 ICKC 이사장 겸 아시아발전재단(ADF) 상임이사, 심호명 밝은사회클럽 한국본부 총재 등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를 상세히 보도한 『재외동포신문』의 기사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당시 현장 상황과 발전기금의 취지를 전하고자 한다. _ ICKC 사무국

동남아지역 태권도 저변인구 확대 및 스포츠외교를 통한 양국간 교류협력강화를 위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의 광폭 행보가 스포츠 불모지인 캄보디아로까지 이어졌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가운데)와 조남철 ICKC 이사장(왼쪽)이 지난 11월 10일 행 추운 나론 체육청소년체육부장관(오른쪽)에게 태권도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본 기사의 모든 사진은 박정연 재외기자 제공)

지난 11월 1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부영크메르태권도센터에서 열린 2018 캄보디아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식에 참석한 조정원 총재는 행 추운 나론 태권도 협회장 겸 체육청소년교육부 장관과 함께 태권도 경기와 시범도 관람한 뒤 시상대에 오른 입상선수들을 격려했다.



지난 10일 열린 캄보디아전국태권도대회 입상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이에 앞서 공식방문 첫날인 지난 9일, 조 총재는 통 콘 캄보디아국가올림픽위원회(NOCC) 위원장 겸 관광부 장관을 예방하고,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 및 스포츠를 통한 양국간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바이온TV, TV3 등 주요방송국들과 현지신문매체들도 취재경쟁에 가세해 태권도에 대한 캄보디아 국민들의 관심을 보여줬다.



지난 11월 9일(현지시각) 캄보디아 국가올림픽위원회 의장 겸 관광부 장관을 맞고 있는 통 콘 장관을 예방한 조정원 총재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이날 저녁 프놈펜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국제대회 행사장에 참석한 조 총재는 행 추온 나론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에게 태권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 발전기금은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의 기부금과 올해 2018 제주세계평화걷기축제 및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초청 자선공연 수익금 등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캄보디아태권도아카데미 운영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조정원 총재와 조남철 ICKC 이사장 겸 아시아발전재단(ADF) 상임이사, 심호명 밝은사회클럽 한국본부 총재 등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캄보디아 태권도보급 및 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

은 행 추은 나론 장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세계태권도연맹이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석, 축사 중인 조정원 총재

행 추은 나론 캄보디아태권도협회장 겸 교육청소년체육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태권도 정신을 통해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갖게 됐다”라며 “훈센총리를 비롯해 중앙정부차원에서도 태권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캄보디아 태권도가 자국에서 열리는 2023 아세안게임을 비롯,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조정원 총재와 행 추은 나론 장관은 이르면 내년 7월 경 ‘캄보디아 오픈태권도 선수권대회’ 또는 ‘캄보디아 친선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한, 캄보디아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프놈펜 2년제 체육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태권도 교육을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하고, 태권도학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ការប្រកួតកីឡាតេក្វ៉ាន់ជូ WT ប្រើសរសើរលើឯកសារិ
ឆ្នាំ២០១៨



2018 캄보디아전국선수권대회 입상선수들과 함께 기념촬영 중인 조정원 총재와 행 추은 나론 장관을 비롯한 현지 태권도계 주요인사들.

[기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박정연 재외기자, 2018/11/14



[ICKC 해외문화교류활동 : 2018 타이페이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참관기]

‘태권도’의 꿈 : 한류의 원조 태권도

- 2018 타이페이 세계 태권도 품새 챔피언십 참관 탐방기 -

지난 11월 14일(수)~11월 18일(일), ICKC는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열린 ‘2018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가하는 한편 타이완 역사문화 탐방을 위한 해외문화교류활동을 실시했다. 본 탐방은 태권도의 국제적 교류를 진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을 비롯하여 ICKC 회원 16명이 참가하였다. ICKC 탐방단은 11월 15일에 열린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가하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와 환담하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태권도 선수단 및 꿈나무들을 환영하며 화려한 기술과 경기를 만끽했다. 이외에도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관 답사 등 타이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넓히는 등, 다채롭고 뜻 깊은 일정을 소화하였다. 본 탐방의 의의를 되새기기 위하여 본 탐방에 함께 참가한 김은자 ICKC 회원의 탐방기를 수록한다.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김은자 회원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_ ICKC 사무국



김은자
ICKC 회원

‘2018 타이페이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WT 2018 Taipei POOMSAE Championships) 개막식에 다녀왔다.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는 태권도의 날인 2006년 4월 4일에 결성되었습니다. 품새는 모든 형태의 태권도의 근본 기반을 대표합니다. 품새가 그토록 인기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더 나은 건강을 위한 접근성이며, 모든 연령, 성별,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연습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품새가 모든 사람의 스포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품새의 아름다움이고 태권도의 아름다움입니다.” _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의 개막사 중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취가 온 세상을 물들인 만추의 계절에 ICKC 회원 16명은 타이페이에서 열린

자기 몸만으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스포츠.
 개도국 선수들이 초강대국 선수를 꺾을 수 있는 스포츠.
 한국에서 시작된 태권도가 세계 스포츠가 되었다.
 문화, 종교, 인종을 넘어 우정을 나누는 수단이 되었고
 태권도는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이다.

개막식은 우리의 태권도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국제적 교류를 이루며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70여 나라의 참가국 대표들이 각양각색의 자기나라 깃발을 들고 입장하며 개막식은 시작됐다.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을 가진 젊은이들이 WT(World Taekwondo, 세계태권도연맹) 휘장 아래 뭉치고 있었다.

기본적인 방어와 공격의 동작들을 묶어 반복수련하도록 짜여진 '구구단'인 '폼새'를 수련한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준 한 장면 한 장면은 명품이었다. 절도 있고 예절바른 자세, '빨리, 정확히, 강하게' 힘보다 속도와 유연성을 담은 그들의 '폼새'는 아름다움을 더한 예술이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어쩔 저리 표현할 수 있을까. 혼신을 다한 눈부신 몸짓들로 태권도를 예술로까지 승화시킨 것이 가슴 뿌듯했다. 우리의 태권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그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을 키워낸 각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대부분 한국인이고, 전 세계 209개 회원국과 8,000만 명에 이르는 태권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태권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큰 존

경을 보낸다. 내 나라의 얼과 문화와 언어를 세계 곳곳에 나르며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한 그분들의 수고에 보답을 드리고 싶다.

자기 몸만으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스포츠. 개도국 선수들이 초강대국 선수를 꺾을 수 있는 스포츠. 한국에서 시작된 태권도가 세계 스포츠가 되었다. 문화, 종교, 인종을 넘어 우정을 나누는 수단이 되었고 한국인만 모르는 최고의 한류상품이 되었다. 태권도는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이다.

이제는 우리가 동작 하나하나, 흰 도복, 폼새 명칭과 용어 안에 한국의 언어와 얼, 역사가 어우러



필자의 배우자이자 그 또한 ICKC 회원인 이항구 진일세무법인 대표와 함께

져 있는 태권도를 다시 보고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 태권도를 수련하는 외국인 수련생은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 대해 스승의 나라로 깊은 애착을 갖고 있다 한다. 반면 정작 우리 한국인은 태권도가 너무 보편화되어 그 중요성과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감동의 개막식을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 ICKC의 '태권도에 대한 꿈'을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 난민지

역 태권도 캠프촌을 순회할 예정이고, 캄보디아 태권도 협회에 태권도 발전기금을 협조했고, 난민 어린이들이 용기와 꿈을 잃지 않도록 태권도 수련을 통해 그들을 일으켜 주고 싶다고 힘주어 말씀하실 때 깊은 공감이가 일었다. 분명 '태권도'를 통해 그들은 자신의 꿈을 찾을 것이고, ICKC의 '배려'가 이로써 열매를 맺으리라.

'역경을 견디며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개막식장에 입장한 세계 각국의 태권도 선수단과 세계태권도연맹의 휘장



경연 중인 독일 태권도 품새 선수단

난민청소년들과 이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활동'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이 지향하는 태권도를 통한 세계평화구현과 뜻을 같이하는 ICKC, 파이팅!

개막식 참석과 더불어 마련된 여정에서 “행복은 불행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동행은 행보를 맞추며 기다려 주는 것”, “사람은 둘 이상 만나면 스승을 만난다” 등등 서로 덕담을 나누고, ‘우정’을 노래했다.

기암괴석을 볼 수 있었던 야류 해양공원, 열차로 3시간 걸린 화려 태로각 협곡 등 타이완의 아름다운 자연은 세계 공통언어임을 느끼게 한 절경

이었다. 장개석 총통이 어머니를 생각하여 만든 자모교를 배경으로 자모정에 앉아 찍은 사진에 ‘어머니에 대한 진한 사랑’을 담아 왔다. 첫 날 맛본 우육면, 스린 야시장 취두부 등 갖가지 거리음식, 101타워 딘다이핑에서 맛본 샤오룽바오, 서문정 거리의 망고빙수, 마지막 날 저녁으로 휘귀 등 먹거리 재미도 쏠쏠히 누렸다.

이 모든 행복한 여정에 초대해 주신 ICKC에 감사드린다. 우리 회원들의 힘찬 응원과 동행이 ‘배려’와 ‘난민지역 어린이 태권도 캠프’를 화두에 두고 있는 ICKC의 소망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



개막식장에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님과 함께 기념촬영

한바탕 노는 역사 놀이터



박찬미

미국 Sidney Sawyer School 한국어 교사

국외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은 대학기관, 세종학당, 사설 학원, 한글학교 등 여러 곳이 있다. 그 중 한글학교는 단순히 언어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계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 ‘한국어’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주요한 수단이며, 한국어로 배우는 한국역사문화는 재외동포후세대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주요 활동이 된다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각 한글학교에서는 한국역사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재미한국학교동북부지역협의회 또한 2014년부터 ‘역사문화연구회’를 만들어 재외동포 대상 역사문화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약한 재외동포 학생 맞춤형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역동적인 체험을 통한 교육을 위해 여름방학 때 역사문화캠프도 실시하고 있다. 특별히 캠프를 처음 열기 위해 한글학교 교사들이 함께했던 2014년, 그 치열하고 열정적이었던 봄과 여름은 잊을 수가 없다. 창의적인 역사수업을 꿈꾸며 20여 명의 교사들이 이루어낸 성공적인 캠프는 진정 힘을 합해 선을 이룬 감동적인 작업이었다. 7번의 워크숍은 재외동포 대상 역사수업의 목표와 방법론에 대한 모색과 연구의 시간이었으며, 한글학교라는 특수 환경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신들의 역사관과 역사인식이 검증되고 조정되는 과정이었고 교사들 또한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 매 작업마다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깊이와 목적의식을 더 가지며 한국역사를 자랑스럽게 가르치는 교사로 거듭나는 귀한 기회였던 것이다.

역사 캠프 대상은 4학년에서 9학년 학생이었으며, 주제 및 내용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캠프는 학습자 중심의 오감으로 체험하는 놀이수업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놀이판을 만들었다. 노래극, 탁본과 판화, 목

탄화 작업, 금관과 토우 만들기, 종이접기 등 우리의 역사문화를 보고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몸으로 익히는 미술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우리 가락을 이용한 북 장단 만들기, 삼국 패션쇼와 군무, 신라 길쌈 놀이, 골든벨 퀴즈 등 많은 학습 방법과 장르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캠프를 통해 학생들에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으며,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통해 학생들 간의 유대감과 소속감도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 라는 새로운 에너지가 감돌기 시작했다.

한국학교 교사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후세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나 혼자만이 아닌 한글학교 교사들이, 우리 한인 공동체가 깊이 생각하는 문제이다. 역사캠프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캠프가 마련한 놀이판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했고 교사와 어우러져 신나게 놀았다. '역사로 한바탕 노는 놀이터 만들기'라는 캠프의 목적이 실현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캠프를 위해 맘을 흘린 만큼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신감은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그들 또한 한국계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2013년 재미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가 1차로 역사 캠프를 실시하였고 이어 한글학교 교사들이 모여

만들어낸 2014년 캠프를 계기로 매년 역사캠프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로 6회째 실시되었다. 앞으로도 교사들은 역사수업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계속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차세대들이 한국, 한국어, 한국역사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더 갖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확인하고 자랑스럽게 인식하는 귀중한 경험이 되리라 믿는다. 



백제의 깃발춤



북으로 공치기



역사 캠프 입학식



삼국 패션쇼



뒤셀도르프서 '독일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 열려

주독일 한국대사관 본분관(총영사 이두영)이 뒤셀도르프대학교와 함께 주최한 '2018 독일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10월 27일 뒤셀도르프대 하우스에서 열렸다. 본분관 측은 최근 독일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신청자와 한국학 전공자가 모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게 됐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20명의 참가자들은 한국말, 한국방문의 첫인상과 경험, 한국음식, 한국인의 친절함, 한국 상품 등 다채로운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심사 결과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샤디 아벳 씨는 "아직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부상으로 받은 항공권을 통해 한국을 찾을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뒤셀도르프대에서 의학 및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벳 씨는 자신이 지은 한국 이름이 '화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한글 및 한국문화에 매료돼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음식, 태권도 등 한국문화를 아랍어로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라며 자신의 한국 사랑을 설명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나복찬 재외기자, 2018.11.02.



'2018 독일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들



‘태권도 국기 지정법’ 10월 18일부터 시행

지난 3월 30일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태권도 국기(國技) 지정법’(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개정안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225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태권도는 관습법적 이름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국기(國技)의 지위를 지정받아 국가적으로 보호, 육성하게 됐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가 국기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올림픽 종목 유지부터 중국의 ‘태권도 동북공정’ 대응까지, 우리 태권도가 헤쳐 나갈 일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공포부터 시행까지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뒀던 것은 정부가 태권도 육성과 진흥,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고민하라는 의미였는데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태권도계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태권도에 관심을 가져야 태권도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서정필 기자, 2018.10.18.



4월 21일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열린 ‘태권도 평화의 함성’ 행사 모습
(사진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태권도와 한국어 교육 및 국제 교류를 위한 4자 협약 체결

ICKC는 지난 9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제)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제)아시아발전재단과 함께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 증진을 위한 '4자 교류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네 단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저개발국에 대한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태권도 및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세계 인재 양성과 아시아 각국 등 해외 교육 및 지원 사업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른 상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조남철 ICKC 이사장이 11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2018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연차대회' 및 'GCS 캄보디아국가본부 결성식' 행사에 참석하여 소정의 태권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 10월 문화탐방 실시 - 선릉·정릉 탐방

지난 10월 18일(목), 여러 회원과 함께 10월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서울 삼성동의 선릉과 정릉을 탐방하였다. 본 탐방지는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완성한 성종과 그의 비 정현왕후의 묘인 선릉,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중종의 묘인 정릉을 돌아보며 조선 왕조의 역사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코스로, 도심 속에 있지만 쉽게 오지 못 했던 본 탐방을 통해 조선 왕조의 정신과 문화를 실감할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었다.



■ 캄보디아에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지난 11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놈펜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국제대회 행사에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와 조남철 ICKC 이사장이 참석하여 행 추운 나론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장관에게 '태권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 발전기금은 ICKC의 기부금과 올해 2018 제주세계평화걷기축제 및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 초청 자선 공연 수익금 등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캄보디아태권도아카데미 운영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날 조정원 총재와 행 추운 나론 장관은 이르면 내년 7월 경 '캄보디아 오픈태권도선수권대회' 또는 '캄보디아 친선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한, 캄보디아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프놈펜 2년제 체육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태권도 교육을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하고, 태권도학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2018 타이페이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참석

ICKC는 태권도 국제화를 위한 해외문화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타이완 타이페이를 방문하고 탐방하였다.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을 필두로 모두 16명이 참가한 이번 탐방단은 11월 15일에 개최된 '2018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는 한편, 국립고궁박물관, 장개석 총통 기념관, 야류국립해양공원 등 타이완의 역사와 문화, 자연 환경을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한다.



■ 우즈베키스탄 아랄해 국제 환경포럼 참석

ICKC는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아랄해 환경 포럼'에 참석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본 포럼은 아랄해 지역의 생태적 환경 개선과 한국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궁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기조 강연을 펼치기도 한 뜻 깊은 자리였다. 박원출 ICKC 감사를 단장으로, 노승락 전 홍천군 군수,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의회 상임고문 등 12명이 참석한 ICKC 탐방단은 아랄해 환경포럼에 참가하는 한편, 우즈베크 현지 고려인 문화협회와 회동하고 만찬에 참석하고 아미르 타무르 박물관 등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일정 등 여러 뜻 깊은 활동을 수행했다고 한다.



2018년 후원하여 주신 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명수, 김민영, 김복음, 김성열, 김소진, 김영규, 김영훈, 김용구, 김용준, 김정복,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지윤, 김진원, 김호일, 김홍석, 노승락, 류성식, 문영호, 박경명, 박관용, 박기연,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방용미, 배대환, 성효동, 손희정, 신미선, 유영찬, 유자호, 윤윤식, 이대근,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향구, 이효정,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상실,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한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최 광, 최영섭, 최춘이,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삼승유화(주),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재)아시아발전재단, (주)포스넷한도, (주)P&H (가나다순,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5일까지) 총액 : 89,280,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3.30. 총회 및 창립 7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前 ICKC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 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방송대 명예교수

부 회 장 김성진 前 한경대학교 총장
김재현 前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운영위원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김옥랑 꼭두박물관 관장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서 혁 연구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종국 경희대학교 교수
이동민 한국IMS 대표
이종택 선진회계법인 대표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2000만원 이상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祝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2018년 6월 29일, 우리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 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2년에 최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래, 이번에 다시 '재지정'된 것으로 명실공히 ICCK의 여러 사업과 활동이 주무관청 및 정부로부터 그 의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서 기부하신 후원금이 이전과 동일하게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에 더욱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문화의 진흥과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 : 2018.01.01.~2023.12.31. (6년간)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Asia Development
Foundation
아시아발전재단

www.asiandf.org

나눔으로 더해가는
밝은 미래
함께 열어갑니다.



아시아발전재단